

인천

꿈을 향해
달려가는

G L O B A L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을 위해,
미래를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all ways INCHEON

N O E E C H I N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인천

2023. 8. AUGUST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6년 연속 수상

굿모닝 인천

2023 08 AUGUST- vol.356



녹색의 계절에



관곡지, 2020

온 천지가 녹색으로 덮여 있다. 색에 민감해진 것은 사진을 시작하고부터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병든 사람마저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색에 집중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진가는 색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색은 사계절로 분류하고, 계절마다 색이 다르다. 언젠가 신문에서 ‘녹색을 자주 보면 눈이 좋아진다’는 기사를 본 후 녹색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다. 녹색 중에서도 연초록은 바라보기만 해도 상쾌하며 눈이 시원하다. 녹색은 평화·편안함·자연·조화 등의 이미지가 있으며,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 녹색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색을 찍고 싶은 것이다. 눈이 극도로 나빠진 분이 내 사진을 보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사진에 담으려고 한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표지 사진 인천 독립운동의 현장(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관)

발행인 유정복(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고주룡(대변인)
편집주간 유준호(공보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안영우·홍승훈·류창현·전재천·유승현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8월 1일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담당관실 032-440-8306



광복 78주년에 보는 <굿모닝인천> 8월호

나무마다 푸른 잎이 무성한 8월, 광복 78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려 몽골항쟁에서부터 인천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인천은 위기 때마다 맨 앞에서 나라를 지킨 호국 보훈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을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굿모닝인천>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골목길 TMI’는 옥련동을 걸었습니다. 인천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오리배를 탔던 송도유원지가 있던 동네죠. 얼마 전 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가 ‘긴담모퉁이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더 인천’의 주제는 ‘건축·도시·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협력건축가들의 눈으로 도시, 인천을 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세상과 잘 이별하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트렌드 인천 2023’에선 생과사를 성찰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고찰했습니다. 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푹 쉬십시오.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늘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외	42	시정 뉴스 민선 8기, 공약 실천율 1년 만에 10% 넘어… 목표 대비 153% 외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월미공원	45	이미지 뉴스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인천의 도약
06	8·15 광복절 특집 호국, 평화의 강을 흘러온 도도한 물줄기	46	의회 뉴스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 외
12	골목길 TMI ⑭ 옥련동	48	인포 박스 국내 유일 치매 친화 영화관 운영 외
18	더 인천 : 공간 ⑧ 건축, 도시 그리고 사람	52	문화 캘린더 외연과 심연 외
24	인천 오감 레시피 ⑧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인천 해산물 파피요트’	54	컬러링 인천 백령도
28	트렌드 인천 2023 ⑧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웰다잉	56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32	인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박호준 공시장	57	편집 후기 ‘대중성’과 ‘예술성’의 공존을 위하여 외
34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58	인천의 아침 광복 78주년, 호국 보훈의 도시 인천
38	시정 줌 인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	59	한 컷 인천 철판에 그려진 태극기
40	문화 줌 인 인천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 발간		
41	새 책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 <사람은 사랑의 기준>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늘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2023년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 〈굿모닝인천〉을 펼쳐보고 7월이라는 숫자에 새삼 놀랐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도 귀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번 조심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든든히 제자리를 지키는 〈굿모닝인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 송하림 동구 우각로

이열치열 더위 탈출

고추장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넣곤 하는데요, 〈굿모닝인천〉에 실린 ‘바지락 고추장찌개’ 레시피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웅진군 백년가게에서 원조의 맛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 맛있는 음식 드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 천민정 동구 봉수대로

이번 휴가는 인천 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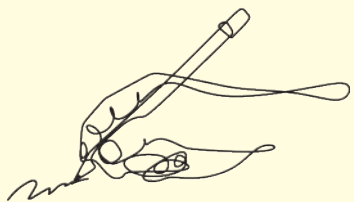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섬도 있고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도 있는데요, 저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우리 인천의 섬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인천〉에서 소개한 국가지질공원 지정 4주년을 맞은 백령도, 대청도도 적극 추천합니다.

— 장현석 미추홀구 토금남로

여름방학을 부탁해

〈굿모닝인천〉 애독자인데요, 아이들 방학 시즌이 되면 더 유심히 책장을 넘기곤 합니다. 아이들과 방학 때 갈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공연이나 전시,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호에 실린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관련 정보는 핸드폰 속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 박화선 연수구 경원대로



도심에서 만나는 푸르른 자연

글 이철성 동구 셋골로



월미공원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과거 군부대였던 이곳은 2001년부터 개방되었는데요, 월미산을 중심으로 너른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월미전망대,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전통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월미전망대에 오르면 인천 시내와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 달빛마루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맛도 그만입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에 건립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2003년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개척자 정신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전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통정원은 궁궐과 별서, 민가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으로는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와 애련지를, 별서 정원으로는

월미공원

전남 담양의 소쇄원과 경남 함안의 국담원을 재현했습니다. 민가 정원으로는 안동 하회마을의 풍산 류씨 종갓집인 양진당과 전통 가옥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월미공원에서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정원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미공원의 둘레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곳곳에 사람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울창해 오히려 걷기에 좋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데다 상쾌한 숲 향기와 경쾌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발걸음을 절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건 덤이죠. 봄에는 화사한 벚꽃이, 여름에는 고운 수국이,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책의 친구가 됩니다.

참, 얼마 전 한국전통정원 내 국담원에 사는 어미 청둥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무사히 부화해 새끼 10마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곳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먹거리가 많은 부용지로 이 청둥오리 가족을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방문해서 건강한 청둥오리 가족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의 행복 충전소, 월미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8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사연이 채택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919년 4월 2일 만오 홍진이 '13도대표자회의'를 열어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한 자유공원. 13도대표자회의는 상하이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 공원의 상징인 맥아더 장군 동상이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한 인천항을 바라보고 있다.

“대한 독립 만세! 인천 사람 만세!”

1945년 8월 15일. 인천 곳곳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인천창영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인천의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강화도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8·15광복은 처절한 독립운동의 결과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국내는 물론 만주, 하와이 같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마침내 8월 15일,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다. 싸워서 쟁취한 결과였다. 우리가 그날을 해방절이라 부르지 않고 '광복절'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독립운동뿐 아니라 인천은 훨씬 이전부터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땅이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인천 호국 보훈의 현장'을 찾아갔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홍승훈 포토그래퍼



응봉산 자유공원의 옛 이름은 만국공원이었다.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선 '전국13도대표자회의'가 열린다. 때는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진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탄압과 경계가 극도로 높았던 시기였다. 극비리에 회의를 주도한 만오 홍진(1877~1946)은 이날 한성정부의 조직안과 헌법인 약법을 통과시키며 한성임시정부를 탄생시킨다.

문학산에 선영이 있던 풍산 홍씨 집안에서 태어난 만오는 1919년 3월 17일 전도사 이규갑 등과 함께 동료 검사 한성오의 집에서 '한성임시정부'의 조각(組閣) 명단을 구성한다. 4월 2일 만오는 전국의 대표자들을 만국공원으로 불러 모아 파리평화회의에 파견할 대표자와 정부 조각 명단을 추진받는다. 그렇게 '한성임시정부 수립선포식'이 4월 23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렸고, 이는 1919년 9월 상하이 통합임시정부 출범으로 이어진다.

만오가 독립을 도모했던 응봉산 자유공원은 지금 인천항이 잘 내려다보이는 바다 뷰를 즐기려는 사람,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상하이임시정부’의 모태

‘한성임시정부’의 탄생지 자유공원

장맛비에 촉촉이 젖은 땅을 밟으며 자유공원을 오른다. 물기 머금은 풀나무 향기가 콧속으로 들어온다. 중구청 뒤 ‘연오정’을 지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인, 하얀 털로 뒤덮인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산책하는 여인. 자유공원 산책로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평화롭기만 하다. 맥아더 Douglas MacArthur(1880~1964) 장군 동상이 내려다보는 자유공원 광장. 그 많던 비둘기들은 어디로 간 걸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광장 한편에 걸린 플래카드가 비둘기가 사라진 이유를 말해 준다.



13도대표자회의를 열어 한성정부를 탄생시킨 자유공원의 표지석



백범 김구가 인천감리서를 탈옥한 뒤 이동한 경로를 따라 조성한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 김구와 모친 곽낙원 여사의 동상이 인천항을 향해있다.

백범 김구가 독립운동가로 성장한
인천항과 김구의 신포동 거리

자유공원 광장을 지나 신포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퉁이 길을 돌면 금빛으로 반짝이는 2개의 상징물을 만난다. 백범 김구와 그의 모친 곽낙원 여사의 동상이다. 인천항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여기서부터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비탈길을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항은 백범이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옥살이를 하며 중노동에 시달렸던 장소다. 1896년 3월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쓰치다(土田)를 죽이고 체포된 청년 김창수는 그해 8월 인천감리서에 수감된다. 인천과의 첫 인연이었다. 1898년 3월 9일 밤 인천감리서를 탈옥한 김구는 독립운동을 펼치다 1910년 11월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던 사실이 발각되며 160명과 함께 검거된 ‘안악사건’으로 체포된다. 서울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구는 1914년 또다시 경성감옥 인천분감으로 이감된다. 이 시기 백범은 인천항 제1부두인 축항 공사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다. 백범은 바다에 떨어져 죽고 싶었으나 함께 식사술에 섞여 있는 다른 죄수들도 바다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 참고 또 참았다고 <백범일지>에 적고 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 경성감옥 인천분감에 있는 동안 백범은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한다.

1898년 탈옥 당시 용동 마루턱에서 김구가 본 ‘뽕죽집’(답동성당)은 앞이 흰하게 트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성당 앞에 있던 가톨릭회관을 헐고 광장과 녹지가 어우러진 쉼터로 변신한 답동성당의 십자가가 여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난다.



강화 3·1운동 기념비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



백범 김구는 인천감리서를 탈옥하며 “천주교당의 뽕죽 지붕이 보였다”고 묘사한 바 있다. 지난 6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답동성당 전경

인천 최초의 만세운동이 펼쳐진
인천창영초등학교

지난 6월 22일 인천창영초등학교 문화재관에선 ‘인천창영학교 존치·발전과 개교 연도 정정 위한 자료집 증정식’이 열렸다. ‘인천창영학교 발전을 위한 시민모임’(공동대표 지용택·신용석, 이하 시민모임)이 최근 이전 위기를 겪은 인천창영초 존치 과정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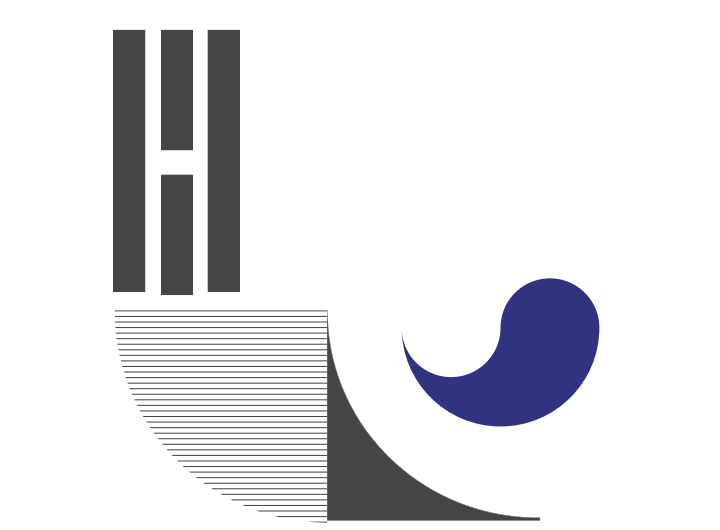
인천창영초는 지난해 인근 지역 재개발로 이전이 논의됐으나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교정을 존치시키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모임은 이런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50권 한정판 자료집을 엮어 이날 증정식을 가졌다.

자료집은 토론회·학술모임 발표문과 토론문, 언론 보도 등 시민 활동을 담았다. 개교 시기를 바로잡는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개교 연도를 1907년에서 ‘1896년’으로 수정한 성과도 수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우리 자랑이고 경쟁력”이라며 “인천창영초등학교 존치를 위해 노력한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잇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석 대표는 “인천의 자존심이자 역사의 현장인 인천창영초등학교가 명실공히 인천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치러진 인천창영초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1919년 3월, 인천창영초 운동장에선 “대한 독립 만세!”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3월 6일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 나온 것이다. 학생들은 3월 8일 시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인천창영초에선 지금 “만세” 소리 대신 “깡깡” 야구공 치는 소리와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인천창영초등학교 옛 교사

‘1919년 3월, 인천창영초 운동장에서 “대한 독립 만세!”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3월 6일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 나온 것이다.

학생들은 3월 8일 시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 주며 만세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인천창영초에선 지금 “만세” 소리 대신 “깡깡” 야구공 치는 소리와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인천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하늘에서 본 인천창영초 전경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정족진을 품은 전등사

병인양요, 신미양요 맞닥뜨려
‘조선뱀’처럼 싸워 외세 쫓아낸 강화도

안개에 휩싸인 전등사 대웅보전이 신비롭게 다가온다. 장마철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巔古} 사찰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롭기만 하다. “딸랑” 빗물에 젖은 풍경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산사의 고요를 깨뜨린다.

1866년 전등사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등사를 오르는 길 중턱에 위치한 삼랑성(정족산성)에서 전개된 조선군과 프랑스군 간의 전쟁이었다. 승려·의병·관군, 범포수 등으로 구성된 조선군은 아래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프랑스군을 맹렬히 격퇴한다.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 기록된 무수한 병사들의 이름과 동문 앞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는 이곳이 병인양요 격전지였음을 말해 준다. 병인양요 당시 전등사 승려들은 경내 정족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문서를 토굴로 옮겨 온전히 지켜내기도 했다. 이 서적들은 일제강점기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송도역을 출발하는 열차

골목길과 철길이 남긴 아련한 추억, 옥련동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는 옛 송도역에서 송도유원지까지 추억을 따라 걸었다. 매립으로 소금기 가신 새 땅에는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짭조름한 삶이 흐르고 있었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옛 송도역이 복원되고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꼬마열차가 달리던 52km의 철로,
인천에서 수원 간 17개 정거장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송도역전시장의 오늘

철길이 남긴 추억

— 협궤열차의 기적 소리에 새벽잠 털어낸 발걸음 소리 가득했었던, 이슬도 채 마르지 않은 어스름 송도의 5일 장터. 어느덧 뉘 좌판에선 마수걸이 흥정이 시작되고, 일면식 없는 인연이어도 먼우금 갯벌마냥 노동으로 갈라진 손금 하나로 마음이 열리곤 했었다.

- <멀고도 가까운 먼우금 사람들>

1973년 남인천에서 송도 구간이 끊기면서 옛 송도역은 수인선의 종착역이 됐다. 그 시절 송도역 앞은 안산, 시흥, 군자 등에서 건너온 촌로와 다라이를 인 아낙들이 곡식과 생선을 펴고 흥정을 벌여 늘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수인선이 폐선하면서 이 모습은 사라졌다. 길 건너 대로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상인들은 건물 뒤편으로 밀려나 새로운 터전을 만들었다. 현재의 송도역전시장이다.

2대째 ‘역전쌀상회’를 운영하는 임동환(66) 상인회 회장은 옥련동 일대가 북적이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다. 어머니는 역전 장마당(반짝시장)에서 노점을 했다. 수인선 따라 보따리 상인들이 이고 오는 미곡을 도매로 매입해 장사를 했다. 역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오래된 단골들 덕분에 꽤 북적였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1990년대까지 시장 골목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여름이면 유원지에 놀러 온 피서객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여기 와서 수박을 몇 통씩 사 가고.” 송도유원지, 수인선 철길, 반짝시장... 임 회장은 사라진 것들이 못내 아쉽다.

역전이 복원된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역사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릿하다. 옛 송도역은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역사驛舍를 복원하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꼬마열차가 달리던 52km의 철로, 인천에서 수원 간 17개 정거장 중 유일하게 살아 있는 역사歷史로 기록될 것이다.



옛 송도역



가족들의 추억이 깃든 사진들

매립으로 소금기 가신 땅 위에
설탕공장이 들어섰다.
일자리를 쫓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 연으로 인천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람들이
서달산 자락, 공기 좋은 옥련동 양지마을에 산다.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두 사람

양지마을, 설탕공장 사람들

— 송도역전시장에서 송도고등학교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비류대로를 따라 걷는 길, 대로변의 고층 상가 건물 뒤로 작고 낮은 지붕을 맞댄 마을들이 이어진다. 비류대로 154번길 일대, 반듯반듯한 길 따라 양옥집이 수십 채 웅기종기 모여 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에서 직원들 사택으로 지어 분양한 단지다. 1985년, 서달산의 나지막한 봉우리를 평평하게 깎고 그 위에 쌍둥이처럼 똑같은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올렸다. 예로부터 양지마을이라 불리던 자리에 설탕공장 사람들이 새 마을을 이뤘다. 정한철(78) 씨도 그때 이사왔다. “남향은 평당 12만 5,000원, 골목 안쪽 집은 10만 5,000원. 제일 끝은 8만 원씩. 추천을 해서 됐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 해양경찰서 자리 땅값이 6만 원 할 때예요. 그 급절이었으니, 고급이었어요.” 처음엔 대중교통도 없어서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실어 날

랐다. 나중에서야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갔다.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 ‘홍어횃집 골목’에서 가끔 회포를 풀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 홍어횃집들이 성황을 이뤘다. 원래 이름은 ‘조개고개 삼거리’였다. 동양화학이 바다를 매립하기 전까지 이 동네는 바닷가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개가 아주 흔했다. 반 시간만 허리를 굽혀 주워 담아도 망태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각종 어패류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조개고개 건너편엔 새인천폴장이 있었다. 동양화학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잠시 운영했던 노천 폴장이다. 이곳의 행락객들도 조개고개에 와서 허기를 달래곤 했다. 지금 그곳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개고개에서 비류대로까지 옥골마을은 모두 철거되었고, 홍어횃집도 뿔뿔이 흩어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에서 여생을 약속한 세 사람. 윤종만, 이원달, 정한철 씨(왼쪽부터)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

— 매립으로 소금기 가신 땅 위에 설탕공장이 들어섰다. 바닷가 산업단지에 1970년 제일제당 인천제1공장이, 1979년 대한제당(현 TS제당) 공장이 세워졌다. 일자리를 쫓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다. 주로 출퇴근이 가까운 신흥동이나 용현동 일대에 터를 잡았다. 이원달(85) 씨는 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인천공장으로 뿔혀서 왔다. 인사과에 근무해 사택 추진에 다소 관여했다. “사택 부지로 석바위 등기소 자리 등 몇 군데를 고려했는데, 옥련동이 예나 지금이나 살기에 좋았어요. 산자락에 폭 싸여 있어 지형도 아름답고.” 제일제당 공장에서는 사탕수수 원료를 수입해 ‘백설탕’ 설탕을 생산했다. “하루에 최고 1500t까지 포장했어요. 12시간 켜, 2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갔죠. 7시에 교대하는데 물량이 달리면 9시까지 잔업을 시켜요.” 처자식 키울 생각에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돌아보면 평생 한 직장, 그 연으로 옥련동에 뿌리내려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 “예전엔 골목이 왁자지껄했어요. 집집이 서이씩 너이씩 아이들이 있어서,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 과일 먹으며 공부하고 때 되면 밥 먹고… 한식구처럼 살았어요.” 다 추억이고 그리움이다. 아이들은 자라서 신도시에 쫓아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고향 집엔 나이 든 부모만 남겨졌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골목에서 이제 부모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운다. 풍족하지 않아도 풍요로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비류대로 154번길 일대 풍경



청량산에서 내려다본 송도 바닷가

물길이 남긴 추억

— 1990년대까지 피서철이면 역전시장에서 ‘송도유원지’까지 행락객이 줄을 이었다. 해변에 빈틈 하나 없이 파라솔이 들어차고 한참 놀다 보면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오리배와 보트, 물썰매, 바이킹, 청룡열차 등 더위를 썩 날려주는 놀이시설도 가득했다. 대관람차에 오르면 인천 앞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송도유원지는 한 때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혔다. 1970년 전국 첫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후 2011년 문을 닫을 때까지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이름을 알렸다. 겨울엔 눈썰매장으로 변신해 사시사철 인기를 끌었다. 세월 따라 풍경 따라, 그 시절 추억도 희미해져가지만 연수구가 송도유원지의 추억 살리기에 나섰다. ‘2023 제4회 新송도해변축제’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송도달빛공원에서 열린다. 인공백사장을 만들어 물놀이장을 열고 과거 송도유원지에 있던 요술거울, 매표소, 오리배를 재현한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내친김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를 달려본다. 바다가 메워지며 파묻힌 섬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본다. 지금은 도로와 맞닿은 섬 아닌 섬, 아암도. 한때 아암도는 하루 두 번 입장을 허락하는 바다 위 전망대였다. 그저 섬 하나였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 시는 송도해안에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최근 개방했다. 총 1.1km의 해안 천수 산책로를 걸으며 바다를 가까이에서 전망할 수 있다. 그곳엔 여전히 아름다운 시절, 특별한 추억이 잠잠히 흐른다.



축제 포스터

사친 향켓,
인천의 기억

구한말 옥련동 일대는 한진마을, 옥골, 독배, 대암 등 자연 마을이 있었던 ‘원우이면’^{源又面}(일명 먼우금)이었다. 일제는 1936년 이 일대를 인천부에 편입하면서 일본식으로 ‘송도정’^{松島町}이라 이름 붙였다. 1937년 수인선을 개통하면서 이 지역에 역이 하나 만들어졌다. 역명은 동네 이름을 따서 ‘송도역’으로 붙였다. 아픈 시대에 태어나 광복 후 반세기를 달린 수인선은 1995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철도가 폐쇄되면서 송도역도 문을 닫았다. 지금은 그 옆으로 새로운 수인선 철도가 놓이고, 인천발 KTX가 2025년부터 달린다.

참고문헌〈옥련동 이야기〉| 최정학 지음



© 김영선

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46년 중구 송학동1가 1번지에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1990년도에 지금의 청량산 중턱으로 자리를 옮기며 옥련동 시대를 열었다. 2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박물관 마당에 옛 수인선 협궤열차가 전시돼 있다. 객차 내부에 ‘1969 인천공작창’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 동구 화수동의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2 송도유원지

1960년대에는 인천 송도해수욕장, 부산 송도해수욕장, 충남 대천해수욕장 세 곳이 전국 최고의 피서지였다. 변변한 놀이시설과 휴양지가 없던 시절, 당일 바캉스가 가능했던 송도유원지는 수도권에서 몰려온 피서객들로 초만원이었다. 뒤따라 1968년에 청학풀장(청학동), 1970년대에 동양화학이 조성한 새인천풀장(옥련동 조개고개 건너편)이 개장해 호황을 누렸다.



© 인천시도시경관아카이브

3 아암도해안공원

갯벌이 매립되기 전, 송도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약 500m를 걸어 아암도로 향했다. 아암도 기행은 철을 타지 않았다. 순바닥만 한 바위섬에 행락객이 덕지덕지 올라앉았다. 그저 섬 하나였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마땅히 갈 곳 없던 1960~1970년대,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줬던 아암도는 인천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로 사랑받았다.



취재 영상 보기

건축, 도시 그리고 사람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협력건축가의
도시, 인천을 향한 시선

‘이름 1977’, 지하 공간에서 바라본 인천항 방향.
마치 눈꺼풀 사이로 세상이 비치는 듯하다.



※ 1,000만 인천 시대의 도시 공간을 만든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상림 공간그룹 대표가 2대 총괄건축가로 위촉됐으며, 3기 공공건축가들과 협력해 2년간 도시·건축·공간 환경 디자인 관련 총괄 조정과 정책 수립 자문을 맡는다.
시 도시디자인과 032-440-4332

‘도시, 인천’을 보다

‘더(The) 인천’을 더(More) 알아가다. 지금 발 딛고 선 도시, 살아가는 동네, 그 안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인천 곳곳에 깃든 인천 사람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건축은 그 시대의 결정이다.”(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은 구조물 안팎으로 인간 삶의 영역 전반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건축물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을 읽는 관점, 꿈꾸는 이상향이 모두 깃든다.
“우리는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윈스턴 처칠)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는 공간을 닮아간다. 건축이 그린 도시 풍경 안에서 추억을 쌓고 기억을 세우며, 마음에 또 다른 집을 짓는다. 도시와 인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진화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공간을 만드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도시는 생명력을 얻는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광동화·이윤정 협력건축가의 시선으로 도시, 인천을 본다. 그 눈길이 닿는 끝에 사람을,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시가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세 시선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 디렉터

‘건축은 그 시대의 결정’이고,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건축과 도시 공간은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또 하나의 시각이다.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광동화·이윤정 협력건축가의 시선으로 도시, 인천을 본다.

광동화 협력건축가, 이상림 총괄건축가,
이윤정 협력건축가(위부터)





‘이음 1977’의 디테일.
건축 당시 단 실내등



‘빛과 벽돌로 짓는 시’ 안에서,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



자유수호의탑 앞에서 내려다보는, 오늘(위)
웅대하고 장엄한 자태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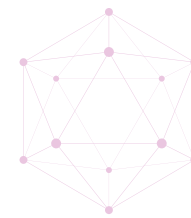
‘디테일’을 보라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

가벼운 빛, 무거운 흙 그리고 눈부신 햇살의 정적. 넓게 트인 창밖으론 인천항이 내려다보이고, 묵묵히 피어나는 푸른 섬표들이 플라타너스 잎사귀를 따라 부드럽게 리듬을 탄다. 자유공원 아래 있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이음 1977’. 창으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 건축가 이상림(68)이 서 있다. “건축은 빛과 벽돌로 짓는 시다.”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 고^췌 김수근은 말했다. 햇살의 농도와 기울기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공간을, 벽돌의 거친 느낌과 한 장 한 장 손으로 쌓아야 하는 인간적인 따스함을, 그는 사랑했다.

이상림은 공간그룹 대표로,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이자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고^췌 김중업과 고^췌 김수근의 명맥을 잇고 있다. 남극 제2기지와 경기도청사,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등이 그의 주요 작품. 인천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송도 투모로우시티(인천스타트업파크)와 갯벌타워,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등을 설계하며 도시 곳곳에 궤적을 남겼다. “게으른 탓에 이제야 이곳을 방문했네요. 그래도 보는 순간 전혀 낯설지 않고, 마치 선생님을 뵙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1977년 완공한 이 집엔 김수근식 건축구조 양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내벽은 정미소 파벽돌을 가져다 정성스레 쌓아 올리고, 외벽은 전돌로 견고히 마감했다. 또 대지의 경사를 살린 스킵 플로어 Skip Floor 구조로 세 층을 율동감 있게 배치하고 중앙 계단을 통해 공간을 하나로 아우른다. 문은 따로 두지 않고 아치로 공간을 구분해 개방감을 살렸다. 여기서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 아치는 완전하지 않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데, 이는 힘을 분산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한다.

건축, 도시 그리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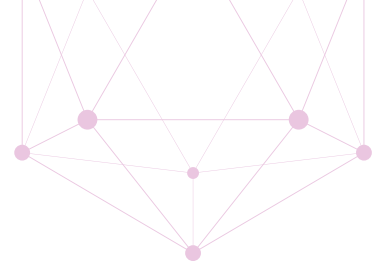
20년 만이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 섰다.



“건축물을 거의 다 완성하고도 마지막 작은 부분 때문에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완벽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디테일의 완성 은 곧 건축물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는 건축물과 도로, 광장 등이 모여 이루는 도시도, 나아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는 말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 그와 인천과의 인연이 더 깊어졌다. 이상림 대표는 지난 5월 ‘인천시 2대 총괄건축가’로 위촉됐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시의 도시·건축·공간 환경 디자인을 총괄 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디테일의 눈’으로 도시를 들여다보고, 인천을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할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도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이 먼저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오래된 도시에 새 숨이 닿고 신도시는 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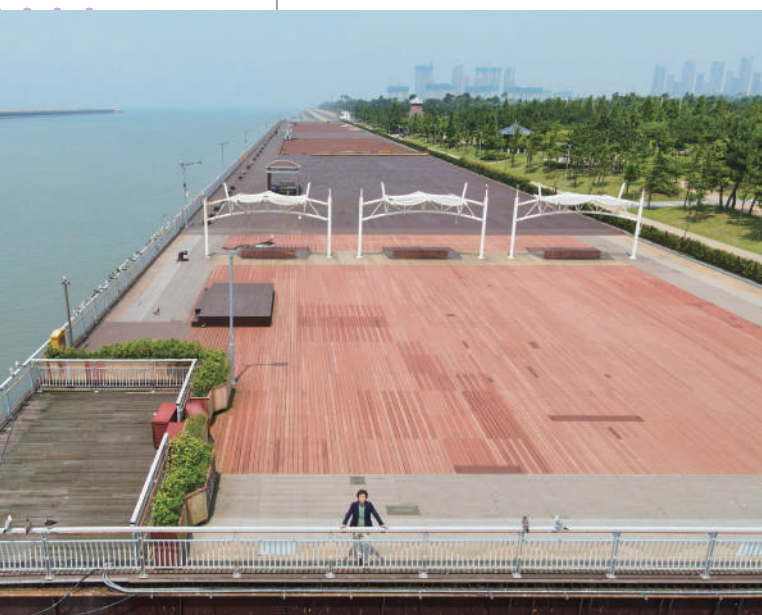
20년 만이다. 그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 섰다. 인천에 김수근의 손길이 스민 작품은 ‘이음 1977’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둘뿐이다. 이 기념관은 인천의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1984년 개관했다. 웅대하고 장엄한 자태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건물은 전시관 두 동을 좌우로 배치했으며, 벽면을 화강석 흑두기로 처리하고 가장자리를 잔다듬해 입면의 볼륨을 극대화하고 수평선을 강조했다. 또 전면의 형태를 산형으로 처리해 형태의 부하를 줄이고, 파도를 상징하는 각각의 매스^{Mass}는 상부로 올라가면서 부재의 크기를 줄여 투시 효과를 극대화했다. 대지의 급격한 단차, 상승하는 공간은 계단으로 극복했다.” 이상림은 김수근을 도와 이 기념관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로부터 공간의 의미를 헤아려본다.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올라 자유수호의탑 앞에 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롭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마주하며, 1950년 9월 15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그날을 가슴에 선명히 새긴다.



송도국제도시 바닷가에 있는 ‘솔찬공원’. 물, 풀, 나무가 어우러져 도심에 싱그러움을 퍼트린다.



솔찬공원 광장에서, 광동화 인천시 협력건축가(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공원. 이 광장에서 인천대교 건설 당시 케이슨을 제작했다.(아래)



그리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광동화 인천시 협력건축가

우리는 도시에 산다. 이른 아침 아파트에서 나와 빌딩 숲에 파묻혀 잠시 쉴 곳을 찾아 숨을 고른 후 다시 회색빛 공간으로 돌아간다. 그 안에서 ‘이파리들을 타고 산들거리는 바람, 나무 사이로 점점 이 쏟아지는 햇빛...’ 숲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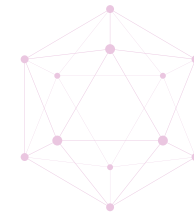
“현대 선진도시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건설된 도시의 회색 인프라스트럭처^{Grey Infrastructure}를 물, 풀, 나무 등을 결합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녹지 네트워크와 수변 녹지 체계부터 공원·녹지·광장, 녹색 건축에 이르기까지 자연 요소를 도입해 도시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요.”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인 광동화(56) 인천시 협력건축가는 인천의 대표적인 녹색 기반시설로 송도국제도시 바닷가에 있는 ‘솔찬공원’을 꼽는다. 이곳은 인천대교 건설 당시 토목구조물인 케이슨^{Caisson}을 제작하고 배로 운반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그 공간을 해체하지 않고 바닷가 텍 형식의 폭 33.7m, 연장 400m, 열린 광장으로 새롭게 했다.

“이곳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발밑을 보고 느껴보세요. 케이슨을 제작할 때 사용한 철재와 새로 시공한 목재 텍의 상반된 재질감과 풍부한 갈색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길엔 배의 접안을 돕던 철재 구조물도 곳곳에 남아 지난 시간을 전한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잊곤 한다, 인천이 바다의 도시라는 사실을. 이 공간은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고 ‘옛’ 시간의 흔적을 그러모아 ‘오늘’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제물포르네상스로 꽃피는 인천 내항 재생사업도 그러하다. “인천 내항 1·8 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이 내년에 착공합니다. 공원 녹지와 광장 등 공공 비율이 54%에 이르러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도심이 활력을 찾고 닫힌 바다가 품을 활짝 열 그날을 기다린다.

건축, 도시 그리고 사람



1. 120년 시간을 가만히 어루만지다.
2.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이윤정 협력건축가. 다가오고 다가가는 시간 사이에 그가 서 있다.
3. 창고에서 김치공장, 오늘 문학관으로 시대성을 담고 숨 쉬어온 한국근대문학관.



공간, 시간을 재생하다 이윤정 인천시 협력건축가

침묵을 깨우고, 해체하고, 호흡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오늘, 120년 시간이 재생됐다.

여기는 아프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추억하는 인천 개항장. 긴 세월의 생채기까지 감싸 안는 키 큰 나무처럼 굽이굽이 시간의 웅이를 깊이 간직하고 있다.

건축사무소 현일 대표인 이윤정(58) 인천시 협력건축가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시간 속을 걷는다. “이 안에서 인천의 근대사를 돌아보고 오늘을 만납니다. 이 건축물은 120년 굴곡의 시간에 살아온 삶을 덧대고 덧대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물결치듯 굽힌 벽돌과 녹슨 철문, 아무렇게나 덧바른 마감미 그 세월의 무게를 말해 줍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개항장 일대의 근대 문화유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2013년 문을 열었다. 2009년에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이 그 시작이었다. 황순우 건축사가 설계했다. 그는 인천 출신으로 개항장 일대의 작업에 집중하면서 40대를 보냈다.

땅을 잃고 장소를 알아가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됐다. 일제강점기에 지어 창고로 쓰다 김치공장으로 가동하던 건축물이었다. 어느 날, 망치질 소리가 터를 뚫고 있던 음습한 기운과 깊은 고요,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웠다. 시냇바늘을 거꾸로 돌려 시간과 공간을 재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걷어낸 지붕 사이로 찬란하게 쏟아지는 햇빛, 그렇게 역사는 오늘을 만났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120년 시간이 고인 옛 창고 건물에서 근대문학의 아름다운 여정을 떠난다. 근대 문화유산이 보존의 대상이 아닌 일상의 공간으로 우리 삶에 스미어 든다.

“시대성을 담아 새 숨을 틔 이 공간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인천시 협력건축가로서 공공건축가들과 힘을 모아 시민의 생각을 담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시 공간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다가오고 다가가는 시간 사이에 선 그에게로 여름 햇살이 살금살금 퍼진다.

‘인천 바다, 담다, 세계로 품다’



인천 바다에서 난 해산물이 요리의 주재료.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인천 어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준비했다.



Since 1892,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무서 길다. 결연 영화초등학교 옛 교사가 자리한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완성하는 오감 만족 레시피. 이번 요리는 바다를 오롯이 품은 한 그릇. 꽃게와 가리비, 새우, 주꾸미, 바지락, 소라.... 인천 연안에서 나는 귀한 해산물로 꽉 채운 프랑스 가정식 파피요트 papillote를 선보인다. 인천의 고유한 식재료로 글로벌 메뉴를 개발해 ‘인천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인천과 세계를 하나로 잇는다’. 국내 최초, 인천 유일의 관광특성화고등학교인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맛 그 이상의 철학을 담아 완성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요리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외식조리과 정광수 교사·임서영 학생 | 스타일링 강지인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국내 최초,
인천 유일의 관광특성화고등학교다.
교육과정은 호텔경영과, 관광외국어과, 외식조리과.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 순간, 저마다의 꿈을 키운다.
그들의 희망이 곧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다.



‘인천의 맛을 알리는, 세계적인 셰프’ 꿈의 조각을 현실로 함께 맞춰가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외식조리과 정광수 교사와 임서영 학생

음식은 ‘삶’이고, ‘꿈’이다

정성 가득한 요리 한입에 온 얼굴에 기쁨이 번지고 가슴에는 만족감이 차오른다. 요리사는 그 소소하지만 빛나는 삶의 행복을 매일매일 전하는 사람이다. 정광수(45) 셰프는 대한민국 국가공인 조리기능장이다. 20년간 글로벌 체인 호텔의 주방을 책임지고, 오늘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외식조리과 교사로 ‘미래 셰프’들의 꿈을 함께 그리고 있다. 미식의 혁명가 페란 아드리야, 고든 램지 같은 세계적 셰프가 인천에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131년 역사를 품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국내 최초, 인천 유일의 관광특성화고등학교다. 1966년 국내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관광과를 신설하고, 2012년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됐다. 교육과정은 호텔경영과와 관광외국어과 그리고 외식조리과.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저마다의 꿈을 키운다. 그들의 희망이 곧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다. 과연 그 스승에 그 제자다. 외식조리과 3학년 임서영(18) 학생은 국가공인조리자격증을 6개나 따냈다. 작은 손끝에서 펼쳐지는 맛의 세계가 사뭇 진지하고 섬세하다. “세계적 셰프가 될 거예요.” 꿈은 원대해야 한다. 그 꿈에 삶이 빛나고, 마음 다해 노력하면 현실이 된다.

“토마토 하나만 완벽하게 요리하는 데도 평생이 걸린다.” - 페란 아드리야
“요리사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데서 일하는 사람이다.” - 앙토냉 카렘

혀끝부터 미각을 휘감아 오감을 사로잡는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테이블 너머 셰프들은 빠르고 치열하게 움직인다.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노동을 감내하고도 요리가 즐거워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끊임없이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긴 시간을 주방에서 뜨겁게 살아왔다. 꿈을 먼저 이론 선배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하는 요리 철학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다. “Yes, Chef!” 아무렴, 할 수 있다. 인천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셰프’. 바라는 내일이 온다는 희망, 그 꿈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밀어 나간다.



식탁 위 '작은 바다'

“바다는 생명을 잉태하고, 땅은 그 생명을 키워낸다.”
- ‘방랑식객’ 고^췌 임지호

인천 바다와 갯벌에서 펴떡이는 생명을 정성스레 보듬어 식탁 위에 올린다. ‘파피요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탕을 싸는 포장지’. 생선을 비롯한 식재료를 종이로 곱게 감싸 오븐에 구워내는 프랑스 가정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 촉촉하고 보드라운 식감과 살살 녹는 감칠맛이 바다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린다. 여기에 지중해 올리브를 곱게 다져 발라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를 곁들이니 부족할 것이 없다.

“바다와 맛닿아 살아가는 인천 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시민도 가까워서 나는 해산물로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리를 선보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단순히 맛을 내는 일이 아니다. 식탁 위에 식재료가 오르기까지 땀 흘린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사람을 향한 마음을 더하고, 나아가 그 삶에 예의를 갖추는 일이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가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광수 교사의 요리 철학은 한 끼 식사에도 깃들여 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미래 주인공을 키운다. 외식조리과는 한식·양식·일식·중식·제과 등 트렌드에 맞춘 6개 최신 실습실에서, 특급 호텔 출신 교사들이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한다. 국제대회 출전과 우수 기업 취업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

“꿈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학교에서 셰프로서 자질을 갖추고 내공을 충실히 쌓았으니까.”, “네, 선생님, 꼭 ‘인천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서로에게 꿈이 되어주는 그들에게서 밝은 오늘과 더 빛날 내일을 본다.



인천 바다와 갯벌에서 펴떡이는 생명을 보듬어 종이로 곱게 감싸 오븐에 정성스럽게 구워낸 ‘파피요트’. 프랑스 대표 가정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



재료 꽃게 1마리, 홍가리비 2개, 새우 3마리, 주꾸미 2마리, 바지락 50g, 소라 1개, 그라나파다노 30g, 시금치 50g, 바질·딜·파슬리 2잎씩, 블랙 올리브 100g, 방울토마토 3개, 화이트와인 50ml, 애호박 30g, 단호박 30g, 바게트 1개, 버터 50ml, 안초비 2개, 케이퍼 10g, 알감자 2개, 래디시 1개, 소금·후추, 올리브오일, 파르메산 치즈, 레몬 주스 약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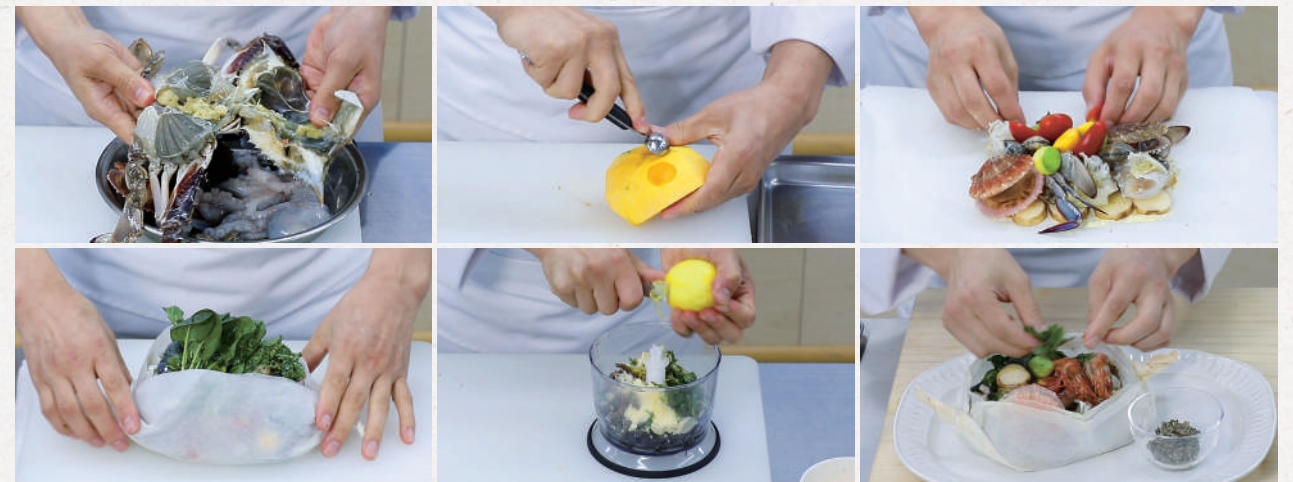
‘인천 해산물 파피요트’ 레시피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도, 예약해야 맛볼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부럽지 않다. 배고프면 언제든 마음마저 든든히 채워주는 맛.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이번 요리는 바다를 오롯이 품은 한 그릇, 인천 연안에서 나는 해산물을 한가득 담은 파피요트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정광수 교사와 임서영 학생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렸다. 행복 한 스푼, 사랑 두 스푼 담은 요리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만들기

- ① 꽃게와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나머지 해산물은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다.
- ②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다진 바질·딜·파슬리로 밀간을 한다.
- ③ 애호박과 단호박은 멜론 볼 스푼을 사용해 모양을 낸다.
- ④ 알감자는 얇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시금치는 씻어 놓는다.
- ⑤ 유산지에 버터를 바른 뒤 얇게 썬 감자와 준비한 각종 해산물을 올린다.
- ⑥ ⑤에 소금, 후추를 뿌려 간한 뒤 손질한 각종 채소와 고명을 올린다.
- ⑦ 화이트와인을 뿌리고 준비한 오븐에 익힌다.

블랙 올리브 페이스트(쌈장)를 곁들인 바게트

- ① 믹서에 블랙 올리브, 케이퍼, 안초비, 파르메산 치즈, 레몬 주스, 허브를 넣고 갈아 블랙 올리브 페이스트를 만든다.
- ② 바게트에 ①의 페이스트를 바르고 오븐에 굽는다.
- ③ 유산지를 포장 형태로 만든 후 200℃로 예열한 오븐에 7~8분간 굽는다.
- ④ 허브, 래디시로 장식하고 올리브오일을 뿌려 낸다.

‘시민 셰프’를 위한 파피요트 요리 Tip

파피요트는 식재료를 종이로 감싸 오븐에 구워내는 프랑스의 대표 가정식. 찜 요리 특유의 촉촉하고 보드라운 식감이 입안 가득 행복을 불러온다. 인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자연의 산물을 주재료로 우리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 해산물은 찜으로 요리할 때 풍미가 확 사는데, 잡내가 나지 않고 묵직하며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하다. 식재료를 담은 후에는 종이 포일로 요리를 다 덮도록 잘 감싸야 수분과 향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바게트와 함께 곁들이는 블랙 올리브 페이스트도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농도를 잘 맞추며 정성을 기울여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웰다잉



'사진으로 쓰는 나의 자서전' 수업 후 기념 촬영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품위 있는 죽음, 즉 인간답게 죽는 것이 화두로 떠오른 것. 여기에 웰빙(well-being)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웰다잉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적극적으로 죽음을 성찰하고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 주변의 웰다잉을 둘러싼 풍경을 전한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웰다잉의 확산, 좋은 삶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

지난 7월 16일 인천효행장려지원센터의 웰다잉 프로그램 ‘사진으로 쓰는 나의 자서전’ 수업 현장. 백발이 성성한 학생들이 빛바랜 필름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연필을 들고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 간다. 소싯적 이름깨나 날린 애기, 고단했던 직장 생활, 비행기를 처음 탄 날, 칠순 잔칫날, 항암 치료 끝에 완치 판정받은 날... 인생 역정 歷程을 회고하는 가운데 ‘잘했네’, ‘고생했어’, ‘오늘 행복해’라는 긍정의 언어가 공간을 채운다. 모두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수업을 진행한 이지원(49) 웰다잉 플래너는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게 죽음이다. 천국을 믿는 사람도 빨리 가고 싶진 않을 터. 하지만 죽음은 시와 때가 없다”라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리 점검해 삶의 가치를 찾고, 죽음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삶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지원 웰다잉 플래너와 김영임 씨(왼쪽부터)



김인순 씨의 '사진으로 보는 나의 인생노트'

나이를 먹는다는 건 꽤 흥미롭습니다. 젊을 때 당연하게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변화가 재미있습니다.

- 배우 고^췌 키키 키린

이 플래너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웰다잉 문화’가 접목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커졌다”며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의 완성이란 생각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행복한 죽음을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가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오늘도 잘 살았다. 돌아보니 세상에 귀한 것 투성이라니. 내 장례식 때는 징징 짜지 말고 즐겁게 놀다 가요. 많이 웃고 노래해 다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는 김감리(김영옥 분) 할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을 홍두식(김선호 분)에게 말하며 이별을 준비한다. 영화 ‘서른, 아홉’, TV 예능 ‘뜨겁게 안녕’ 등에서는 사전 장례식이 치러졌다. SNS에 자신의 묘비명, 유언장을 올리는 것도 이젠 자연스럽다. 버킷 리스트, 생전 유품 정리, 장기 기증 등도 웰다잉 문화와 궤를 같이한다.

‘기다리는 죽음’에서
‘준비하는 죽음’으로

누구에게나 ‘생^生과 사^死는 하나다. 죽음은 나이가 많은 적
든, 사고든 병이든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깊
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간을 갖고 슬기롭게 웰다
잉을 준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기다리는 죽음’에서
‘준비하는 죽음’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웰다잉을 준비
하고 공부하는 것.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웰
빙과 웰다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
를 진행한다.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교육
을 맡아 건강한 삶을 위한 암 정복·치매 교육·심혈관질
환 관리,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돌봄(호스피스), 인간답
게 죽을 권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 프로그램(유
언장 작성) 등을 알린다. 8월 18일까지 센터 블로그를 통
해 접수가 가능하며,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5주간 진행된다. 하반기 중 2기, 3기를 모집한다.
교육 담당 장소정(28) 사회복지사는 “시민들 스스로 중

은 삶과 죽음을 준비하려는 인식과 태도가 늘어나는 추
세”라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웰
다잉을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육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0일 율목도서관에서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의 저자 강창래 작가의 강연이 열렸다. ‘떠나는 아
내의 밥상을 차리는 남편의 부엌 일기’라는 표지글처럼
그는 암 투병 중인 부인을 위해 고통과 아픔 대신 음식으
로 만들어낸 짧지만 기뻐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전했다.

강의를 들은 강미조(50) 씨는 “내가 원하는 죽음의 풍경
을 잠시 상상해 봤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
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니 저절로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동구는 지난 3월 올해 첫 취업 특강으로 ‘웰다잉 플
래너’ 직업 체험을 실시했다. 동구청 담당자는 “30대 경
력 단절 여성부터 6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큰 관
심을 보였다”라고 귀띔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1기 포스터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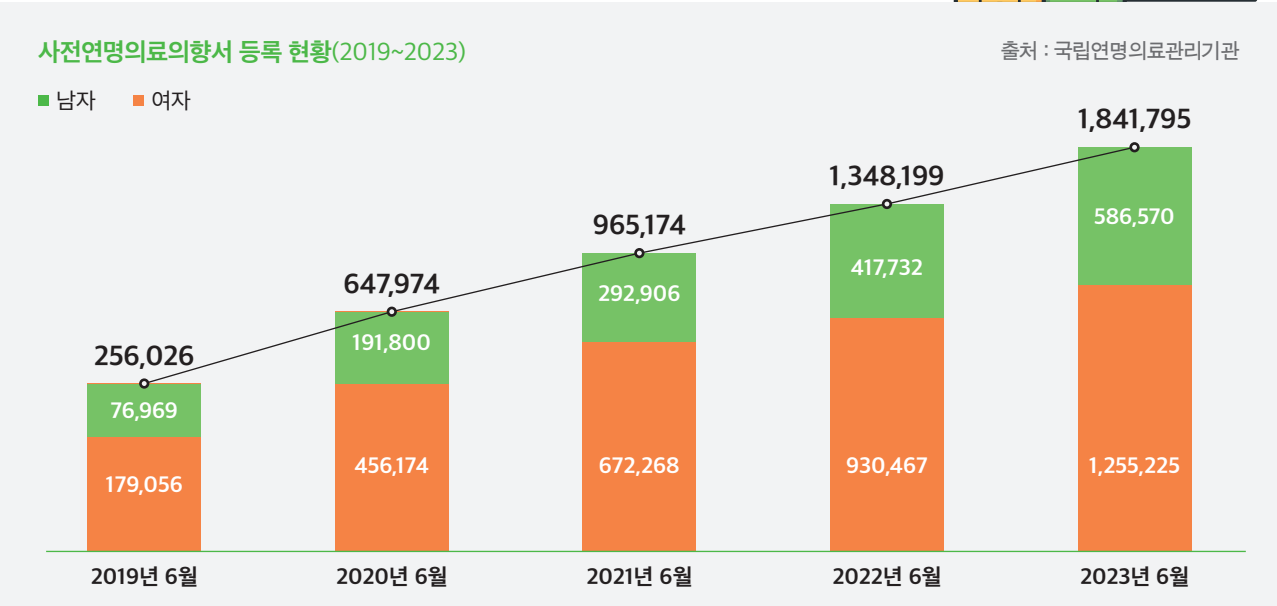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018년 2월 4일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법
(언제나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등록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 기관 찾기

법령 정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법령 정보 및 기록 열람 가능



호스피스·완화의료,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돌봄

최근 방송인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연명치료에 대한 소
신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설명을 듣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해 화제를 모았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는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
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이러한 연
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다잉법’이라고도
부른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6년 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6월 현재 184만 명을 넘어섰다. 삶의 마지
막을 중환자실이나 처치실이 아닌 가정이나 호스피스 병
동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얘기가.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김대균(51) 인천성모병원 권
역호스피스센터장은 “환자의 신체적 통증 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심리적 요소도
보살핀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
사, 자원봉사자 등이 팀을 이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라
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함
께 날갯짓을 해야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했
다. 현재 서비스는 말기 진단을 받은 암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마저도 병상 부족으로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
용률은 2013년 12.7%에서 2021년 23.2%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웰다잉’은 어려운 일이 될
지도 모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과 의료진, 정부의 관심
과 적극적 실행이 절실합니다.” 그의 말처럼 죽음의 풍경
을 바꾸는 것, 그건 초고령화사회를 맞는 우리 모두의 과
제일 것이다.



200년, 4대의 혼이 흐르는 화살이여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 저널리스트



화살을 만드는 일은 고되다. 우선 구하기 힘든 재료를 찾기 위해 전국의 산하를 누벼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신우대(가는 대나무), 도피(복숭아나무 껍질)와 같은 재료를 찾아내면 혹독한 노동이 시작된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휜다. 늦가을 저녁에 부는 바람처럼 외로운 건 물론이다. 가족 말고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멈춘다면 수천년 간 이어져 온 동이족의 전통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살대를 일직선으로 바라보는 박호준(79) 궁시장(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난다. 쓰윽 쓰윽. 그의 손이 지나간 자리가 매끈해진다.

“1년에서 3년생의 가는 대나무를 찾아내 1년 정도 말립니다. 말리는 동안 휘어진 대나무는 볼로 펴주고 일직선이 될 때까지 다듬어줘야 합니다.”

화살대가 완성되면 화살 양 끝을 제작할 차례다. 화살촉을 쫓고 오니(줄을 거는 부분)를 만들려면 높은 산 바위 틈에서 자란 참싸리와 복숭아나무 껍질, 민어부레풀, 꿩 깃털이 필요하다.

“만드는 건 둘째 치고 하나같이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라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다녀야 합니다. 겨우 찾아내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도 제가 아쉬우니 어찌됐어요. 무조건 사야죠, 허허.”

화살 하나 만드는 데 1년의 시간과 100번의 손길. 이처럼 힘든 궁시장의 길을 열다섯 살 때 시작해야 했던 사연은 무엇일까.

“할아버지가 조선 말 궁수(활 쏘던 군사)였는데 나중에 화살을 만드셨거든요.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가업을 이었고, 저 역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나무를 다듬고 하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됐네요.”

열일곱 살 때 가업을 이은 선친 박상준은 1978년 초대 궁시장이, 그는 2008년 보유자가 되었다.

고양에서 태어난 그는 세 살 때 계양구에 정착해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인천 사람’이다. 처음부터 궁시장이 되려 했던 건 아니다. 생계를 위해 집안 대대로 해오던 일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조부, 선친께서 먹고살려고 한 일입니다. 열대여섯 살 때 친구들과 밖에 나가 놀고는 싶어 죽겠는데 대나무 다듬느라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녔지요.”

구명가게로 생계를 보유했던 강화도 출신 아내 김가각(77) 씨와의 사이에 낳은 세 아들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낸 것도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한 문제 틀려올 때마다 다섯 대씩 ‘빠따’를 때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내 이름 작명에 대한 사연도 유쾌하다.

“옛날엔 동네 이장이 출생신고를 해줬어요. 아내가 셋째 딸인데 그 아래로는 여아를 낳지 말라는 의미로 장인어른이 이름을 김총각이라 지었는데, 이장이 면사무소에 도착해 이름을 알쏭달쏭 생각하다 그냥 가각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배우려 하지 않으려는 궁시장의 계보를 잇겠다고 한 큰아들 주동(52) 씨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인천엔 4대를 잇는 ‘궁시장 명가’가 있다.



박호준 궁시장이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세워진 중동의 심장

두바이의 도시계획은 1960년 이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두바이는 세계적 관광도시 만들기, 세계적 금융도시 만들기, 그리고 세계적 쇼핑도시 만들기를 지향해 왔다. 인공섬을 건설하고, 해변을 따라 고층 빌딩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했으며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을 연이어 오픈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해 외국인 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현재 두바이는 아랍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글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세계 최고이자 최대,
갖가지 수식어를 갖춘 매혹적인 관광도시

두바이의 도시계획은 고층 빌딩과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박물관,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갖추면서 시작되었다.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는 높이 828m에 이르는 163층짜리 세계 최고^{最高} 빌딩으로 두바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두바이 폴’ 역시 축구 경기장 200개를 합친 것과 같은 100만m² 이상의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最大} 쇼핑센터로 꼽힌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을 포함해 1,200여 개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영화관, 아이스링크,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인 셈이다. 두바이 하면 호텔도 빼놓을 수 없다. ‘부르즈 알 아랍’^{Burj Al Arab}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7성급 호텔로 돛 모양을 한 채 인공섬에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두바이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두바이 박물관’, 두바이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두바이 현대미술관’, 미래의 혁신적 과학과 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두바이 미래 박물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두바이 미래 박물관은 강철과 유리로 된 비대칭 원형 구조로 2022년 2월 22일에 개관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4개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외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하고 혜택 가득 주는
두바이 경제자유구역

두바이는 세계적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났다. 두바이에 입주한 금융기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2004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다. 이곳은 중동에서 가장 큰 금융 허브 중 하나로 다양한 기업이 입점해 있다. 그 밖에도 두바이에는 세계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이 입주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은 두바이 전체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며, 입주 기업은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50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도 면제된다. 또한 토지와 건물, 물류, 금융 혜택이 있으며, 비자 발급과 외국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토지는 면적과 위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99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환경 생각하며 보다 스마트하게,
미래 향한 두바이의 도전

두바이는 2021년 3월 일곱 번째 도시계획 ‘두바이 2040 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두바이의 5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화유산 지역’, ‘사업 및 금융 허브 지역’, ‘호텔 및 레저 허브 지역’ 외에 ‘2020 엑스포 지역’, ‘지식 및 혁신 지역’을 추가했다.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 문화 보존,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만들기’다. 현재 두바이는 폐기물 관리,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두바이는 ‘재생 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 산업지구를 지정해 태



외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되는 두바이 미래 박물관



중동에서 가장 큰 금융 허브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양광·풍력·수소 발전소 등의 관련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산업지구는 지멘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베스타스, 테슬라 등 많은 기업이 건설은 물론 운영까지 함께하고 있다. 한편, 두바이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 보안, 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두바이 경찰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범죄 패턴을 미리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줄이고 있다. 또한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바다에 빠진 인명 구조 활동 등에 로봇공학을 활용해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두바이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 21’을 실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전략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관들은 금융·교육·부동산·관광·상업·의료·교통·보안 등 8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중동에서 새로운 글로벌 시티로 부상하고 있는 두바이는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제거하며 관광, 금융,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이처럼 미래를 향한 두바이의 도전은 도시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천에도 묵직한 생각거리를 남긴다. 첨단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는 이제 글로벌 모두의 과제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당위일 것이다.

아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일상 속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연일 지속된 장맛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일요일 아침.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에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인천 전역의 기상 상황과 초동 대처 현장 등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소방서·경찰서 등과 지속 협업해 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가 보았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2만여 대 CCTV 통합 연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잠들지 않는 최첨단 안전망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은 안전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 시 관련 부서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초동 대처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다. 3교대로 365일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상황실의 한쪽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24개의 모니터엔 인천 전역의 2만여 대 CCTV, 접수된 사건·사고, 기상청 레이더 영상 등 각종 정보가 쉴 없이 보인다. 10개 군·구의 통합관제센터는 물론 소방본부, 교통정보운영센터, 기상청 등 26개 유관 기관의 정보가 모여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첨단 시스템이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사고 발생 지점 주변 6개의 CCTV 영상이 뜨며, 재난 및 안전 사고가 확인되면 시민에게 재난 문자, 방송사, 안심in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동안에도 주변 CCTV와 소방차의 현장 출동 CCTV 영상을 동시에 띄워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하천 수위 감지 화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202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휘 중인 유정복 시장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가운데)과 직원들

“때론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경험하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사람의 몫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발 쪽 뺨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잠들지 않는 최첨단 안전망’을 갖추고, 사전 예찰과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의 시선이 상황판을 떠나지 않는다. 재난안전상황실 전 직원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한다)의 자세로 24시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있다.

실시간 하천 수위 감지 위험 수치 도달하면 ‘상황실에 알람’

기후변화로 국지성·기습성 폭우가 빈번해지며 이로 인한 하천 범람의 위험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실시간으로 하천 수위를 계속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 즉각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송기천 및 굴포천의 3개 지점 외에 남동구 장수천, 부평구 갈산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서구 계양천 등 주거 밀집 주변의 하천 교량 10개 지점에 수위 계측 센서를 추가 설치한 것. 측정된 하천의 물 높이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보여진다.

“측정값이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상황실에 알람이 울립니다. 하천 인근 수변 산책로 등 인도가 물에 잠길 때는 ‘주의’, 제방의 중간 지점에는 ‘경계’, 끝 지점에 이르면 ‘위험’ 경보

가 울려 보행자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박 본부장은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예상 밖 기후 등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화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생활안전 앱, 안심in SOS 버튼 하나 누르면 ‘신속 경찰 출동’

우리 시의 스마트폰 앱 ‘안심in’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10개 군·구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늦은 밤 귀갓길 여성, 아동과 1인 가구 등 시민의 안전을 촘촘히 살피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

안심in의 대표 서비스 ‘안심귀가’는 도착지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전에 등록해 둔 가족과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내 위치가 보이는 기능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도움요청’ 버튼을 누르면,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긴급호출이 전달되고 경찰·119 등이 출동한다.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사용자의 위치, 사진, 연락처가 전송되며 주변의 CCTV 화면이 즉시 보여져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내 친구(아이) 위치 보기, 주변 CCTV·지구대·안심지킴이집(편의점) 조회 등의 기능도 갖췄다.

우리 시는 또 노후 건축물에 계측 센서를 부착해 24시간 시설물 상태(기울기, 균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스마트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 발간

인천의 공간, 도시재생,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변화 담아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우리 시가 인천 도시계획의 발자취를 담은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을 발간했다.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은 1962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는 인천의 모습을 담고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인천 도시계획의 정책과 변화를 다섯 가지 주제(도시공간정책, 기성 시가지, 신시가지, 산업 공간 조성, 교통 물류)로 나눠 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책은 각각의 주제를 모두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변천과 인천의 공간 변화를, 제2권은 인천 기성 시가지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도시재생 이야기를 서술한다. 제3권은 인천 시가지 형성과 확산,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제4권은 인천 경제성장의 중심인 산업단지와 공장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제5권은 공항·항만, 고속도로와 철도, 해상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정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전문 서적이지만 문학 작가와 협업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서 형식으로 발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권별로 수록된 책자 내용을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해 어른뿐 아니라 인천에 관심 있는 어린이도 인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사적^{史的} 자료의 정리와 함께 미래 인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을 읽은 시민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형성됐고,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인천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주요 도시계획 관련 업무 기관(부서)에 배포한다. 인천시청 누리집(정보공개포털-간행물)를 들어가면 자유롭게 PDF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주제별 내용을 요약·제작한 동영상 역시 인천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icncityhall)에서 볼 수 있다.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에 등장하는 인천 문학의 시선으로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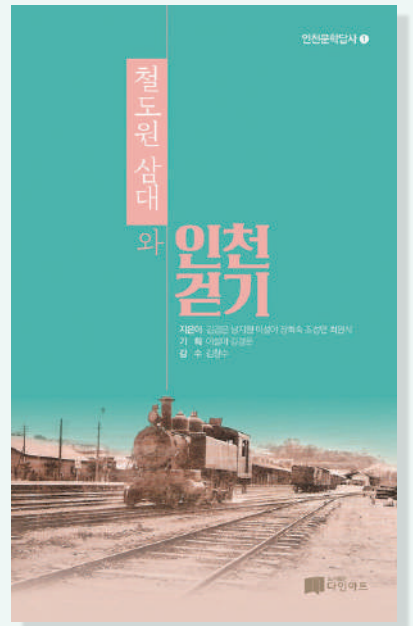
저자 김경은 외 5인 | 펴낸 곳 다인아트 | 174쪽

‘인천 문학 답사’ 시리즈 첫 번째 책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가 나왔다. 이 설야 시인과 김경은 소설가가 기획하고, 최원식·조성면 문학평론가가 공저로 참여했다. 여기에 남지현 도시공학자와 장희숙 문화해설사의 답사 관련 지도를 싣고 있다.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는 근대의 표상, 철도를 중심으로 인천과 영등포를 역사적 장소로 소환한다. 등장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궤도에 우리의 미래가 투영된다.

책은 총 3부와 부록으로 짜였다. 1부는 지도를 품은 답사 코스 소개로 경인철도를 기준으로 인천의 장소를 1·2코스로 나누었다. 여기에 서울 답사 코스와 지금은 갈 수 없는 서울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경의선 코스를 추가했다. 답사 코스 중간에 ‘기차를 노래한 시편’(김기림, 박형준, 김정환, 백무산 등의 시 일곱 편)도 넣었다.

2부에선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를 문학사적·신화적 관점에서 쓴 두 편의 글을 만난다. 3부 황석영 소설가와 최원식 문학평론가의 대담도 흥미롭다. <철도원 삼대와 인천 걷기>의 창작 배경과 소회 등을 작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의미의 스펙트럼을 향한 모험

저자 김박은경 | 펴낸 곳 여우난골 | 200쪽



김박은경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사람은 사랑의 기준>이 출간됐다. 시인은 시집에서 일상적 순간의 틈을 파고들며 새로움과 유구함을 이야기한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독특한 레토릭^{rhetoric}(수사학)의 감각을 보여준다. 매립된 도시의 과거와 미래, AI의 현재, 아르바이트생, 인턴, 라이더, 국제결혼을 한 여인, 여자, 아이, 일용직 노동자, 전쟁을 겪는 사람의 삶과 마음 등을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낸다.

“무수한 ‘소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박은경은 “소외된 이들은 특별한 슬픔도 아픔도 주지 않으며 극적인 사건으로 결말이 날 즈음에야 잠시 주목을 받는다”며 “주목받아 본 일 없고 차후로도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무수하고 무구한 익명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며 썼다”고 말했다.

앞서 세 권의 시집을 통해 개성있는 시 세계를 구축해 온 시인은 “배면의 마음과 무한의 시간에 대하여” 쓰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출생인 시인은 2002년 ‘시와반시’로 등단했다. 시집 <온통 빨강이라니>, <중독>, <못 속에는 못 속이는 이야기>를 펴냈으며, 산문집으로 <홀림증>, <비밀이 없으면 가난해지고> 등이 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율 1년 만에 10% 넘어… 목표 대비 153%



우리 시는 공약 실천율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4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 실천율이 10.8%에 이른다. 민선 7기 같은 기간보다 5.1% 포인트 높은 수치다. 민선 8기는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 주민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면 시행,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확정, 인천 사랑 존경 인물 시민상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시 평가담당관실 032-440-3192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개방

송도 매립으로 기능이 상실된 해안 방파벽과 오래된 군 초소를 철거해 총 1.1km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소래~송도 구간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번 사업 외에도 우리 시는 인천 앞바다를 더 가깝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잇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시 항만안전과 032-458-7163

인천e지 앱 출시 2주년 이벤트 진행

인천e지는 앱 출시 2주년을 맞아 8월 23일까지 가입 회원에게 개항장 일대의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팩(5,000원 권 4매)을 제공하며 사용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인천 지역 13개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획득하면 180여 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032-458-7333

전국 최초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우리 시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해당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의 제한이 없어졌고, 이후 무분별한 난립이 이어져 안전사고 및 도시환경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가 유일하다.

시 건축과 032-440-4768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역세권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약 2,53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 지역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6,133㎡ 규모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고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다. 또 이 지역은 굴포천역과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부평구청과 신트리공원 등 기반 시설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시 도시균형정책과 032-440-4468

위성·드론·소나 활용해 해양쓰레기 관리

우리 시는 위성과 드론, 소나로 해안가부터 바닷속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해양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드론으로 섬과 해수면을 세밀하게 탐지하며 바다 밑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한다. 또 관측된 정보는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올해는 자월도를 시작으로 하며 2025년까지 영흥도, 덕적도 등 옹진군 도서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시 항공과 032-440-4834

친환경 전기자동차 781대 추가 보급

우리 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총 781대의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 화물차 445대(보조금 80억 원), 버스 28대(19억 원), 이륜차 308대(5억 원) 등 781대로 총 104억 원 규모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화물차(소형) 1,800만 원, 버스(대형) 8,000만 원, 이륜차(대형) 30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다양한 차종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에너지산업과 032-440-4357

all ways INCHEON

인천시민 안전지킴이

안심&n

인천시민의 귀갓길 수호천사

안심&n과 함께 동행하세요

긴급도움 요청하기

나에게 전화걸기

지인에게 알리기

내친구 위치보기

인천광역시

Android iOS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개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 지난 7월 3일 응급실을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응급실은 553㎡ 규모로 환자분류실, 선별진료소, 일반병상 6병상, 음압병상 1병상, 수술 및 처치실, 심폐소생실, 일반촬영실 등을 갖췄다. 김춘동 인천보훈병원 병원장은 “비로소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개소

우리 시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남녀 이용자를 분리해 2개소로 운영되며, 정원은 8명(남 4명, 여 4명)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발달성장애)이라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은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5

공공심야약국 27개소로 확대 운영

우리 시의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8개 구에 총 27개소로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휴일 포함)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판매 및 복약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제기됐던 서구(검단·청라), 연수구 3개 지역 10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3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예방 키트 지원

우리 시는 중구 연안동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150가구에 폭염 예방 키트를 지원한다. 폭염 예방키트는 여름용 이불과 도라지차, 생수 등으로 구성되며 물품 전달 시에 온실가스 진단은 물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자 한다. 우리 시는 그동안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해당 가구에 쿨루프, 단열필름, 이중창 설치를 지원해 왔다.

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4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관광 여행 앱

인천@지



앱 다운로드하고 이벤트 참여하기!!

IMAGE NEWS

이제 APEC, 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향해

01

재외동포청 유치 1,000만 도시 인천



75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1,000만 도시 개막, 위대한 인천의 역사 시작

02

APEC의 핵심 요소 갖춘 유일한 도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염원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 및 마이스 기반 시설

03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대두



인천 인구수 광역시 중 2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 지속

04

항만과 공항, 국제기구 해사전문법원을 위한 토대 완료



해상 분쟁 시 해외 법원에 의존
국제 해사 사건 수요 증분
해양경찰청, 국내 선사 등 포진

COUNCIL NEWS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



인천광역시의회는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내 대학생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실무를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한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2월 13일 인천대·인하대와 체결한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별로 10명을 선발해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인천시민연합 대표와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연합 대표 6명과 현안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비롯해 인천공항발 GTX-D(GTX-D-Y자)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필요성, 서북부권 교통 개선을 위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확정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정기 개통 요청 등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일본 오사카 방문, 정책 대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과 도시 녹지 조성 분야의 우수 도시로 손꼽히는 일본 오사카시를 방문했다. 연간 22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둘러 오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청취하고 해상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방문해 각종 사업 용지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고했다.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로 선정된 청라초등학교와 인천봉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늘봄 학교’는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인천광역시는 30개교를 선정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유형 다양화를 중점 시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전체 늘봄 모델학교를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개최 논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 및 석준호 대외협력위원장,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미 해병대 출신 참전 용사인 뉴욕주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살바토레 스카라라토 Salvatore Scariato 회장과 하세중 수석부회장을 초청해 더욱 뜻깊은 행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사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는 한편, 박귀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인천형 예비 의료인력 지역사회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인천시·인천의료원·의과대학 간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의회사무처) 032-440-6136



웹진
QR코드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SNS



blog 블로그



f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ALK 카카오톡



유튜브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

국내 유일 치매 친화 영화관 운영

내용

- 인천치매센터, 동구치매안심센터, 미림극장 주관으로 국내 유일의 치매 친화 영화관인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 현재까지 2,000여 명이 영화 관람
-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 누구나 무료로 관람
- 단체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치매센터 혹은 동구치매안심센터로 개별 문의

문의: ㉠ 032-472-2027, 032-772-6307

2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

내용

-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기존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
- 다만, 사용량 요금은 동결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문의: ㉠ 032-440-4342

3

인천하늘수, 먹는 물 수질 기준 인증

내용

- '2023년 인천하늘수 품질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수돗물 인천하늘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
- 원수는 법정 검사 항목인 38개보다 많은 61개 항목 진행, 정수는 법정 검사 항목인 61개보다 3배 많은 188개 항목 진행
-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수질 자동 측정기를 통한 결과는 '인천시 우리집 수돗물 맵(watermap.incheon.go.kr/web)'에 실시간으로 공개
- 무료 수질 검사는 미추홀콜센터(032-120)나 관할 수도사업소, 물사랑누리집(ilovewater.or.kr/web)에서 신청

문의: ㉠ 032-720-2526

4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in 인천' 개최

내용

- 'We Are C:raveler', 미디어 산업의 교류와 협력의 장
- 유튜브 조나단과 한살차이가 홍보대사로,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참여해 소통
- 쇼케이스, 팬 미팅, 굿즈 스토어, 라이브 방송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 진행

기간 : 8월 4일~ 5일

참관객 사전 등록 : 8월 3일까지,

<https://www.koreacreatorfesta.co.kr>을 통해 신청

문의: ㉠ 032-440-3995



5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오픈

내용

-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상
- 저렴한 배송료와 빠른 배송
- 인천(강화, 옹진 제외) 및 서울 지역 당일 배송 3,500원, 전국 익일 배송 2,500원
- (당일 배송의 경우 직접 입고 시 3,000원)

문의: ㉠ 032-440-3872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6

가족 가족 공예 '네임택 달고 세계로' 안내

일시: 8월 19일 오후 2~4시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

내용

- 하와이 초기 이민 여정 강의 및 가족 공예 진행
- 가족이 함께 모여 여행 가방에 부착하는 네임 태그 제작
- 8월 7일부터 선착순 여섯 가족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인천시청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 접수

문의: ㉠ 032-440-4708 ㉡ www.incheon.go.kr/res

7

인향 야학, 가을 학기 학생 모집

내용 : 61년 전통의 야학 인향초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교육 과정 : 초등·중등·고등(입학 시, 최종 학력 졸업증 필요), 남녀 연령 제한 없음

수업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시작, 9시 종료

모집 기간 : ~9월 22일. 평일 오후 2시 이후

접수(토·일·공휴일은 휴무)

문의: ㉠ 032-772-4061, <http://www.inhyang.net>

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간: 7월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대상: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

내용

-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상환 기간은 5년 이내
- 최초 3년간 이자의 1.5%를 인천시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인천신용보증재단)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1577-3790 ㉡ www.icsinbo.or.kr

9

부모 급여 지원

내용

-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이므로 매월 35만 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의 차액만 지급됨.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032-440-2894

10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하계 휴업 안내

휴업일: 8월 5일(토) ※ 8월 6일(일) 정기휴업

문의: ㉠ 032-440-6482

11

연수문화원 8월 소식

연수문화원 풍물단원 모집

기간: 8월 14일까지

대상: 65세 미만, 사물놀이 1~2년 경력자, 함께 사물놀이(징, 북, 장구, 팽과리)를 즐기며 성장하는 연수문화원 풍물단원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연수문화원)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032-821-6229 ㉡ www.yeonsu.go.kr

연수문화포럼

일시: 8월 29일 오후 2시~4시 15분

장소: 청학아트홀

내용: 연수구 문화 자산의 보존과 교육·문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포럼

신청 방법: 당일 현장 방문

문의: ㉠ 032-821-6229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2

미추홀학산문화원 8월 행사

주말엔 학산네로

일시: 8월 19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내용: 북(BOOK)자리, 놀(興)자리, 찻(茶)자리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문의: ㉠ 032-866-3993

미추홀 시간 여행 ‘고고(古古) 발굴단’

일시: 8월 19~20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문학산
내용: 청동기부터 비류 백제, 조선 시대까지의 시간 여행
문의: ㉠ 032-866-3994

13

‘인천 보물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내용
- 인천 섬 전용 체류형 관광 상품
- 웅진군 14개 섬과 강화군 2개 섬을 대상으로 운영
- 상품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고
(blog.naver.com/incheondodolife)
문의: ㉠ 070-7714-5433(웅진군), 032-468-5437(강화군)



14

송도-인천공항 간 리무진 버스 6777번 재운행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2021년 1월부터 운행 중지
- 송도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라 충분한 이용 수요 확보 예상
- 1일 3대, 12회 운행 예정이며, 배차 간격 30~90분
- 기존과 달리 기점을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연장 조정
문의: ㉠ 032-440-3984

15

송도컨벤시아 8월 전시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기간: 8월 4~5일
장소: 송도컨벤시아 2홀·3홀
문의: ㉠ 02-2236-2715 ㉡ www.koreacreatorfesta.co.kr

인천 이스포츠 챌린지 아마추어 대회
일시: 8월 12~13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3홀
문의: ㉠ 032-876-5079 ㉡ icngame.or.kr

2023 인천낚시박람회
일시: 8월 25~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1홀
비용: 7,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2284-0019 ㉡ i.fishing-korea.com

16

시정 소통 라디오 방송 ‘인천사이다 토크’

내용
-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낮 12시 진행
- 경인방송 iFM(FM 라디오 90.7MHz)에서 방송
-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양방향 라이브
문의: ㉠ 032-440-2199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7

2023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

기간: 9월 24일까지
내용
- ‘개항 140년, 다시 깨어나는 인천을 만나다’를 주제로 네 가지 세부 과제 중 한 가지 선택해 제작
-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인천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와 맵을 내려받아 진행
- 10분 이내 작품 소개 영상 촬영 후 메일로 접수(incheoncreator@gmail.com)
- 총 24개 팀에 45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수여
- 문의: ㉠ 032-440-3083

18

인천 지역 도서관 행사 ‘풍성’

미추홀도서관_레고로 배우는 코딩
일시: 8월 7~10일 오후 2~4시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어린이 그림책 만들기
일시: 8월 8~10일 오전 10시~11시 30분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어린이 로스쿨
일시: 8월 8~10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문의: ㉠ 032-440-6647

미추홀도서관_물속 곤충의 구조와 특징 알기
일시: 8월 27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문의: ㉠ 032-440-6665

청라호수도서관_여름 독서 교실
일시: 8월 7~10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일시: 8월 9일 오후 1시 30분~3시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_동화랑 동시랑
일시: 8월 8~11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문의: ㉠ 032-562-1675

청라국제도서관_여름 역사 특강
일시: 8월 16~17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문의: ㉠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_보드 타고 세계 여행
일시: 8월 14·16일 오후 1~3시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746-9139

영종하늘도서관_사서와 함께 도서관 투어
일시: 8월 17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746-9139

미전도서관_오감으로 즐기는 역사 놀이
일시: 8월 8~10일 오전 10시~오후 1시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문의: ㉠ 032-590-2833

미전도서관_다국어 동화 수업
일시: 8월 16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문의: ㉠ 032-590-2833

08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외연과 심연
(Denotation And Profundity)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1(B)
8월 15일까지
☎ 032-760-1000

2023년 도시를 보는 작가전 - '치유의 숲'展
인천도시역사관 자양말, 소암홀, 아암홀
10월 22일까지
☎ 032-850-6031

동상이몽 - '큐레이터의 선택 스펀오프'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9월 3일까지
☎ 032-440-6734

인천시립박물관 - 동구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공동 특별전 '피고 지고, 그리고... 화수·화평동'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0월 15일까지
☎ 032-440-6733

휴과 불의 조화, 토기
-천년 도시 인천 검단의 토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11월 30일까지
☎ 032-440-6797

Re-wild garden: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 032-760-1000

이달의 공연

05 토

작곡가 시리즈 - 드보르작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8월 5일 오후 5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032-453-7700

남해아카데미 우수 학생 콘서트 - 이효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5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6 일

트리오 우니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6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11 금

Hi 브라질, High 라퍼커션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8월 11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749-7294

12 토

어린이극 II - 리틀 뮤지션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8월 12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전 석 1만 5,000원
☎ 032-453-7700

피터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월 12일 오전 11시, 오후 1:30
전 석 2만 원
☎ 010-7417-9986

13 일

이재원 첼로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13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15 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월 15일 오전 10시
무료
☎ 032-440-2505

18 금

야근 말고 불금
트라이볼 공연장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832-7995

이달의 공연

옥탑 재즈 II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조수민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19 토

가족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감냥 - 편의점을 환하게 밝혀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월 19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8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1566-6551

남해아카데미 우수 학생 콘서트 - 조건희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19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0 일

강타 트리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8월 20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3 수

커피 콘서트 - 악단광칠
인천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8월 23일 오후 2시
전 석 1만 5,000원
☎ 032-427-8401

24 목

인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교류 음악회 : 아름다운 나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5,000원, A석 1만 원
☎ 032-427-8401

25 금

연극 '가족'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8월 25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749-7294

26 토

목각인형 한마당
학산소극장
8월 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 석 2만 원
☎ 032-866-3993

토요 스테이지 - 최후의 클래식 쇼스타코비치 I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8월 26일 오후 3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032-453-7700

2023 쇼퀸 TOP 7 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월 26일 오후 2시·6시 30분
VIP석 13만 2,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11만 원
☎ 1533-3463

가족 매직쇼 - 버블 J의 언빌리 버블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월 26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4시
예매가 2만 3,000원, 정상가 3만 5,000원
☎ 053-413-1119

27 일

벤김의 60분 순삭 클래식 - 낭만 편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8월 27일 오후 4시
특별석 3만 원, 전 석 1만 원
☎ 010-5035-8400

30 수

학산가족음악회 '고도의 심리극 : 실내악'
학산소극장
8월 30일 오후 7시
무료
☎ 032-866-3993

31 목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I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뮤지컬 ‘언노운 - 조병창,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뮤지컬 ‘언노운’은 부평구에 위치했던 조병창에 역사적 드라마를 부여해 일제강점기에 인천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활용해 관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화려하고 강렬한 음악으로 독립군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한편, 아름다운 멜로디의 서정적 음악으로 개인의 사랑과 희망을 보여준다. 또한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일시: 8월 30일 오후 2시·7시 30분, 8월 31일 오후 2시(오후 2시 공연은 학교 단체 관람)
장소: 청라블루노바홀 비용: 무료 문의: ☎ 032-833-5993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이달의 드로잉
백령도



최은주 작가



최은주 작가의 채색 가이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희^{高呼}라는 예명과 같이 그의 작품은 호랑이를 닮은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28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양한 아트페어와 국제교류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인천미술협회 부지부장과 계양구예술인연합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대한민국전업작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 2023년 7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연희 연수구 송도대로



이경순 남동구 도림로



이예슬 부평구 세월천로



이종경 중구 대무의로



황인원 부평구 이규보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② 이메일: goodmoringic2023@naver.com
- 기간: 2023년 8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은 많은 섬을 품고 있다. 바다 위 섬은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생명을 지키며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준다. 백령도 사곶해변에서 저 멀리 무인도를 바라보며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준 풍요로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숭고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화사한 꽃들 속에서 두 마리 새가 지저귀고 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여유를 갖기를 희망한다.



인천시민의 시선

박금녀 연수구 독배로



❤️ 💬 📍

문학산 정상까지 자주 등산을 합니다. 사방이 탁 트여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문학산 역사관에서 새로운 지식도 쌓으며 보람찬 시간을 보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은 없겠지요?

#문학산정상 #숲멍 #피톤치드 #역사공부는덤

김윤경 연수구 용담로



❤️ 💬 📍

부모님과 함께 계양산에 있는 장미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근처에 맛집도 많아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장미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계양산장미공원 #가족나들이 #맛집투어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oodmor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8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장순애 서구 신석로



❤️ 💬 📍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우려니 마당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항상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아파트에서식물키우기 #올해만난꽃 #노력과보람

최시연 미추홀구 장천로



❤️ 💬 📍

인천에 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덕적도에 가보았습니다. 너무 푸른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를 보면서 몸도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더운 여름, 모두 건강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덕적도 #눈부시게푸른바다 #몸도마음도맑음

‘대중성’과 ‘예술성’의 공존을 위하여

30년 넘게 해왔지만 글 쓰고 매체 만드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굿모닝인천>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른 시도와 달리 관보 같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고품격 종합지’처럼 느껴져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민들께 인천 시정을 잘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굿모닝인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읽는 재미와 아는 재미’, 매번 잡지를 만들 때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심사숙고합니다. 영화나 문학 같은 예술 비평에 비유하자면 ‘대중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 편집장이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어느덧 8월 휴가철입니다. 인천엔 168개 섬을 포함해 여름휴가를 즐길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휴가를 맞아 푹 쉬시고 하반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굿모닝인천>은 꼭 챙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共明 김진국 -

도시를 보고 느끼고 사랑하다

우리는 도시에 삽니다.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빌딩 숲으로 흘러 들어가, 잠시 쉴 곳을 찾아 숨을 고른 후 다시 회색빛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도시와 인간의 삶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진화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도시를 만드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도시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인천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건축·공간 환경 디자인을 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테일에 주목하고, 녹색 기반 시설을 향유하며, 옛 시간을 재생한다.’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협력건축가가 애정 어린 세 시선으로 도시, 인천을 봅니다. 그 시선이 닿는 끝에 사람들,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가 있습니다.

- 도시, 인천을 바라보며, 정경숙 -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7월의 폭우 한가운데,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갔습니다. 밤 사이 들려온 전국적인 비 피해 소식에 상황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24개의 모니터엔 인천 전역의 2만여 대 CCTV, 접수된 사건사고, 기상청 레이더 영상 등 각종 안전 정보가 쉴 없이 보입니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의 최첨단 안전망 시스템입니다. 시는 또 집 근처의 하천 교량, 노후 건축물에도 센서를 부착,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위험 요인이 다양해져 안전망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거만사위(편안할 때 위태로운 때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다)의 자세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폭우와 폭염 사이에서, 최은정 -

광복 78주년, 호국 보훈의 도시 인천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791년 전, 인천에 강도江都란 도시가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강화도를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1232년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왕조는 수도 개경(개성)을 떠나 강화로 도읍을 옮긴다. 몽골제국에 맞서 ‘의로운 항전’을 하기 위한 ‘천도’였다. 강화천도 이후 고려는 유럽까지 집어삼킨 골리앗 몽골에 맞서 38년간 처절한 항쟁을 벌인다. 1270년 몽골과 강화조약을 맺으며 항쟁은 끝이 났으나, 다른 나라와 달리 고려는 복식 등 모든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천 강화도가 전시戰時 수도首都로 38년간 고려를 지켜낸 이래, 인천은 ‘호국 보훈의 도시’ 역사를 도도하게 써내려 왔다. 왜란, 호란이 발발한 16~17세기 인천은 왕실의 보장지處保障之處 역할을 했다. 청나라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은 1656년 월미도에 국왕의 임시 거처인 ‘행궁’을 설치했는데, 유사시 월미도로 피신한 뒤 영종도를 경유해 강화도로 들어가기 위함이 었다. 서구 열강이 밀려오던 19세기, 병인·신미양요가 발발했을 땐 격렬하게 싸워 나라를 지켜낸 것도 인천이었다. 병인양요(1866) 때는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쫓아냈으며, 신미양요(1871)가 일어났을 때는 광성보에 배수진을 친 채 최신헌 함포로 무장한 미군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 무수한 조선 군인들이 순국하는 등 희생은 컸지만 중국과 일본도 해내지 못한 서구 제국주의를 인천은 막아냈다. 인천이 늘 전장의 중심이었던 건 지정학적 운명 때문이었다.

인천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 중간지대에 있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목이었다.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자 서울로 가는 관문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땅의 9할을 점령당한 최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낸 땅도 인천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 월미도에서 시작한 ‘인천상륙작전’은 3일 만에 인천시청(현 중구청)에서 표양문 임시 인천시장 취임식을 열고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전과戰果를 기록하는 등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는다. 남북 대치 상황. 근래 들어서도 인천은 무수한 희생을 치르며 최전선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켜냈다. 서해교전,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한반도 전쟁의 상당 부분을 치러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가 다음 날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계획하고, 2025년엔 참전 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격상시키려는 이유는 어지러운 역사 속에서 의연하게 지켜온 인천의 ‘나라 사랑 정신과 실천’을 기리기 위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올해부터는 그 가치를 되새기고 재조명하는 의미로 대규모 주간 행사로 치러지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복 78주년. 광성보에서 올려다본 인천의 여름 하늘에 순국선열들의 영령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강화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칠판에 그려진 태극기

3·1독립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던 1919년 3월 12일. 강화공립보통학교(현 강화초교)에서 독립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화공립보통학교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은 삼시간에 강화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장날이던 3월 18일 강화에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은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만세운동의 기운은 강물처럼 흘러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는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2023년 여름, 강화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만세의 함성처럼 귓전을 울립니다.